

연중 제17주일,
조부모와 노인의 날

대구주보

ARCHDIOCESE OF DAEGU WEEKLY BULLETIN

2026.07

26

[가해] 제2547호

2025~2026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

“하늘 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마태 13,44)

오늘의 전례

임당송 하느님은 거룩한 거처에 계시네.
하느님은 한마음으로 모인 이들에게
집을 마련해 주시고, 백성에게 권능과
힘을 주시네.

제1독서 1열왕 3,5-6 7,7-12

화답송

◎ 주님, 제가 당신 가르침을 사랑하나
이다.

○ 주님은 저의 몫이오니, 당신 말씀
지키기로 약속하였나이다. 당신 입에서
나온 가르침, 수천 냥 금은보다 제게는
값지옵니다. ◎

○ 당신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자애를
베푸시어 저를 위로하소서. 당신 자비
저에게 이르게 하소서. 제가 살리이다.
당신 가르침은 저의 즐거움이옵니다. ◎
○ 저는 당신 계명을, 금보다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당신의 모든 규정을
바르게 따르며, 저는 온갖 거짓된 길을
미워하나이다. ◎

○ 당신의 법 하도 놀라워, 제 영혼 그
법을 따르나이다. 당신 말씀 밝히시면
그 빛으로, 미련한 이들이 깨치나이다. ◎

제2독서 로마 8,28-30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
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 나라의 신
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
이다. ◎ 알렐루야.

복음 마태 13,44-52

영성체송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 토종씨앗 전시, 교구청 로비(7.15.-24.)

† 평화의 모후,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주일의 강론

죽전성당 주임 | 김지현(요한) 신부



물빵 아니라 오롯함

“아, 그때 주식 좀 사놔더라면” 왜 안 사놔냐 하면, 물랐기 때문이죠. 알았으면,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서라도 사놔줬죠. 돈은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돈 얘기는 거리가 먼 것 같지만, 사람들의 피 땀 눈물이 녹아있는 소중한 돈이니, 예수님도 중요한 문제로 다루십니다.

투자 전문가들은 물빵과 영끌에 대해 경고합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투자 위험을 관리하는 전략적 방법으로 분산투자를 권장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정반대 전략을 제시합니다. 가진 것을 다 팔아, 모두 처분하여 그것을 사라고. 이게 과연 맞을까요?

오늘 주제는 자산 투자 전략이 아니죠. 투자는 전문가들의 권고를 따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렇지만 살다 보면 물빵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보물이라 부르죠. 보물을 발견하면 물빵해야 합니다.

이 보물은 사람들이 발견해 주길 기다리며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내 눈에 들어오죠. 내가 발견한 거죠. 나를 밝혀주고, 빛나게 해주고, 완성해 줄 것 같은 보물. 하지만 아직 내 것이 아닙니다. 값싼 보물이 아니기에, 충분한 값을 치러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적당히 흥정하거나 은근슬쩍 속여서 가질 수 없죠. 물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난 안 들리고, 안 걸리고, 안 잡히고 할 수 있어! 그럼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건 당신의 능력 문제가 아닙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상식, 지켜야 할 보편 가치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오롯할 곳에 오롯하기를 바라십니다. 오롯해야 할 곳에 양다리나 문어발을 놓지 말아야죠. 신앙도, 하느님 나라도, 사람도, 사랑도, 오롯해야 얻을 수 있는 보물입니다. 나는 오롯해야 할 곳에 오롯하고, 안배해야 할 곳에 잘 안배하고 있나요? **매주**

말씀 KEY WORD

보물 | 테사우로스(θησαυρός)

오늘 복음의 보물은 값비싼 물건을 가리키는 동시에, 무엇을 위해 다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를 묻는 말입니다. 마태오가 사용한 그리스어 ‘테사우로스(보물, *θησαυρός*)’는 귀중한 것과 그것을 품은 공간을 함께 가리킵니다. 보물이란 말마디에는 ‘무엇을 귀하게 여기며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가’라는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물은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드러내는 은유인지도 모릅니다.

밭의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보물을 만들어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연처럼 주어진 것을 알아보고, 그 기쁨 때문에 자신의 삶의 가치를 다시 정리합니다. 하늘 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획득하는 보상이 아니라 먼저 주어진 은총이어서 참으로 발견한 사람만이 누리는 새로운 질서입니다. 모든 것을 판다는 것은 가진 것을 무조건 버리라는 무소유의 명령이 아닙니다. 가장 귀한 것을 알아본 마음은 덜 귀한 것들의 자리를 새롭게 정한다는 뜻입니다. 신앙은 더 많이 소유하는 기술이 아니라, 무엇이 끝내 남는 보물인지를 알아차리는 지혜입니다.



레오 14세 교황 성하의 2026년 제6차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 담화(요약)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이사 49,15)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결코 잊지 않으시겠다고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약속하십니다. 자기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보다 당신 사랑이 훨씬 크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들은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다.”(이사 49,14)라며 괴로워하는 마음에 대한 응답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잊혔다는 아픈 마음을 공유하고 있고, 그 가운데에 상당수가 노인들입니다. 많은 노인의 삶에는 그들의 얼굴을 흐릿하게 만드는 장막이 드리워져 있는 듯하며, 이는 외로움에 짓눌리는 가정과 요양 시설에서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은 우리 자신이 하느님의 아들딸이라는 깨달음이 나이에 상관없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되새겨 보는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특히 젊은 이들이 연로한 가족과 찾아 줄 사람이 없는 이도 방문하는 아름다운 관습이 되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많은 노인이 홀로 남겨진다는 점을 알고 있기에 주님의 약속을 기쁘게 선포합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복자 요한 바오로 1세 교황의 말씀처럼, 나이가 어떠하든 우리 자신이 “하느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는 존재임을 깨닫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아버지이시고, 더 나아가 우리 어머니이십니다.” 진정한 신앙 체험 없이 노년에 이르렀더라도, 이때는 영적인 삶을 시작하거나 다시 이

여가기에 적절한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에 힘입어 우리는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서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노인 여러분,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여러분을 “새로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연약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바로 이 약함은 새로운 잠재력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마음이 열려 서로를 지지하게 되고, 참평화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께 간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연약”하지만 동시에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노년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사람은 노년기에도 새롭게 태어날 수 있고, “평온과 신뢰 속에 너희의 힘이 있다”(이사 30,15)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하루빨리 온 누리에 평화가 찾아오도록 저와 함께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날마다 기도로 저를 지지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기도를 전합니다. 저희를 결코 잊지 않으시는 주님, 저희가 언제나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 새로워지게 하소서!

바티칸에서, 2026년 6월 15일

레오 14세 교황

(※ 전문은 교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D-368

▷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대구 교구대회 봉사자 2차 모집

대상_ 2027 WYD 대구 교구대회 봉사를 희망하는 교구민

모집인원_ 선착순 120명 마감_ 2026년 8월 15일(성모 승천 대축일) 19:00

모집분야_ 사무국 지원, 가이드, 안내·의전, 전례, 양성, 통역, 문화·홍보 콘텐츠, 환경·시설

※ 자세한 내용은 교구 홈페이지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대구 교구대회” 게시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와 젊은이들을 위한 묵주기도 봉헌 운동 35,387,151단 (2026. 7. 16. 기준)

백년의 기억, 천년의 희망 ⑰



아픈 이들을 품은 사랑의 병원, 성요셉 무료진료소

교구 문화홍보국 장성녕 안드레아

1930년대 초, 대구대목구 성직자들이 잇따라 병으로 세상을 떠나는 아픔을 겪게 되자 드망즈 주교는 보육원 아이들과 성직자들을 위한 병원(Infirmierie)을 마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1931년 6월 직접 설계를 시작해 같은 해 11월 1일, 샬트르성바오로수녀원 경내에 입원환자를 위한 병실과 교구청 내에 환자들의 휴식 공간인 별관을 세웠습니다.

비록 성직자를 위한 병원으로 출발했으나, 드망즈 주교는 병원의 문을 가난한 주민들에게도 활짝 열어 두었습니다. 구름처럼 몰려드는 환자들로 인해 개원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병원의 증축은 불가피했습니다.

1934년 7월 16일, 병원을 크게 증축하여 ‘성요셉 무료진료소’를 정식 개원했습니다. 이 진료소는 대기실과 진찰실, 조제실, 공동 병실, 의사실, 간호사실 등 당시로서는 보기 드문 체계적인 의료 시설을 갖춘 무료병원이었습니다. 무료 진료를 이유로 지역 의료계의 반대와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으나, 대구중앙병원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운영을 꾀꾸이 이어갔습니다.

진료소에서는 도립병원 의료진이 정기적으로 내려와 진료를 맡았고,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의 프랑스인 르네 수녀와 한국인 수녀들이 환자들의 치료와 간호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 결과 개원 첫해에만 8,842명의 환자를 돌보았고, 1934년에는 연간 진료

인원이 2만 9,646명에 이를만큼 수많은 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보살폈습니다.

성요셉 무료진료소는 단순히 육신의 병만 치료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는 희망을, 절망에 놓인 이들에게는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살아있는 복음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의료봉사는 곧 가장 구체적인 선교이자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이러한 의료 사목은 교구 안에서 새로운 선교 모델로 자리 잡았습니다. 1935년 영천 용평에 훗날 ‘예수성심시녀회’의 모태가 된 삼덕당(三德堂)을 설립한 델랑드 신부는 무료진료소를 운영하기 위해 동정녀 두 명을 대구 성요셉 무료진료소로 파견하여 의료 기술과 봉사 정신을 익히도록 했습니다. 교육을 마친 뒤 용평으로 돌아온 이들은 무료진료를 통해 수천 명의 주민을 돌보았고, 이 의료봉사는 복음의 씨앗을 퍼뜨리는 소중한 선교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후 1955년 ‘성요셉의원’으로 이름을 바꾸어 지역 사회의 보건을 담당하다가 1973년 운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먼저 찾아가 치유의 손길을 내밀던 그 숭고한 정신은 대구대교구 의료선교의 단단한 밑거름이 되었으며, 오늘날에도 교구의 다양한 의료 및 사회 복지 활동을 통해 천년의 희망으로 면면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빛과**

시위 불참에 따른 보복 가능성(?)

3월 11일(화)

로베르 신부가 편지를 보내고 홍콩에서 은퇴하고 싶다고 했다. 나는 그를 만나러 갔다. 그는 적어도 얼마 동안은 조용히 있을 것이다. 서울로 카닥스 신부에게 편지를 보내 로마의 요구사항을 알리고, 증명서를 청해야 하고 또 이곳에 도착해 8일간의 피정을 해야 한다고 했다.

3월 12일(수)

페랑 신부가 떠나고, 투르뇌 신부가 왔다. 어제도 두 번의 시위가 있었다. 선교사들은 시위자들이 시위를 포기한 데 대해 가톨릭에 대해 복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에 약간 동요되어 있다.

3월 13일(목)

뤼텔 주교는 <경성일보>(京城日報)의 기사에 대구의 소요로 인해 체포된 사람들 중에 성유스티노 신학교의 가톨릭 신학생 한 명이 끼어 있다고 알려졌다. 샤르즈뵈프 신부에게 이 신문에 항의하도록 말했다. 즉 체포된 그 청년은 옛 신학생으로서 1915년에 신학교를 떠나 결혼한 사람이다. 더욱이 그는 시위를 한 것 같지 않으며 시위자들이 도착하는 도로에 있다가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

3월 15일(토)

보복은 예상할 수 없다. 어제 날짜 관보에, 외국인들에 대한 전보를 금지하는 명령, 그리고 누구를 막론하고 하룻밤이라도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자는 구금과 벌금형에 처할 것이고 또 그런 사람을 경찰에 신고할 것을 엄명하는 기사가 게재되었다. 영사에게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하여 뫼텔 주교에게 보냈다. 일들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 같다.

3월 18일(화)

나는 대성당에 고해실을 설치하게 했는데 마산포(馬山浦)에서 돌아온 때부터 그 일을 하고 있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는 ‘쇄신’입니다.

캠 페 인
바로보기청년들의 아이디어와 제안을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기본당 전례와 행사에
청년들의 참여·역할 확대하기청년 친화적인 신앙 표현
방식을 존중하고 지원하기세계청년대회를 계기로
본당 청년 사목을 점점개선하기

2026년 한 해 동안 교구 평신도위원회에서는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월간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영상은 교구 유튜브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주간 교구 일정

	선종 사제	미사 안내	교구 행사
7 26(일)	한성희 디오니시오 신부 (1981년 7월 26일 선종)		제6차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 기념미사, 10:30 비산 성당
27(월)		1대리구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11:00 계산성당 2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11:00 범어성당 구미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11:00 도량성당	
28(화)		구미지역 교정사목 후원미사, 10:00 형곡성당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14:00 신암성당 19:30 다사성당	
29(수)			교구 평신도위원회 월례회의, 18:00 교구청 본관 사목국 회의실
8 01(토)		1대리구 4지역 교정사목 후원미사, 10:00 태전성당	생태영성을 찾아서, 10:00 교구청 별관

제11회 시니어 성가 합창 경연대회

“당신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당신 이름에 찬미 노래 바칩니다.”(시편 9,3)

일시 11. 14.(토) 13:30~15:30

대상 1963. 1. 1. 이전 출생 신자(본당별 신청)

신청 및 문의 교구 가정복음화국, (010)9461-3077

장소 주교좌 범어대성당 대성전

접수마감 8. 28.(금) 17:00 까지(9팀 선착순 마감)

WYD 십자가와 성모성화 교구 순례 수기 공모

WYD 대구 교구대회 조직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3일부터 7월 1일까지의 순례 기간 동안 교우들이 체험한 은총과 감동을 나누고자 ‘WYD 십자가와 성모성화 순례 체험 수기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교우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대상 교구 신자

접수 daegu2027wyd@naver.com

마감 2026. 8. 15.(성모 승천 대축일)까지

문의 250-3116~7

■ 수도권 | 피정 알림

한국성모의자애수녀회 성소 상담

장소: 본원(칠곡), 계산서원(대구)

대상: 수도성소에 관심있는 미혼 여성

문의: (010)3265-6219

※ 개인 피정 가능합니다.

살레시오회 성소 모임

대상: 중1~35세 미만 미혼 남성

문의: (010)6221-3520

제주 성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광활한초원 성이시돌 목장에서 침과 함께

제주섬(우도, 비양도) 포함: 8.8~10

8.14~16 / 8.20~23 / 8.28~30

추자도포함 성지순례: 9.1~4 / 10.7~10

문의: (064)796-4182 / (02)773-1455

성 이냐시오 영신수련 피정

기간: 9.3(목) 17:00~6(일) 15:00

장소: 제주 성이시돌 피정의집

피정동반: 구정모 신부 (마르코, 예수회)

피정비: 30만원 / 신청: (064)739-0951

주최: 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

■ 단체 알림

바뇌의성모기도회 월례미사

나는 가난한 이들의 동정녀이다.

일시: 7.30(목) 14:00 기도, 15:00 미사

장소: 관덕정순교기념관

성지안내 봉사를 위한 천주교회사 강의

기간: 9.2~11.25(매주 수) 19:30~21:20

장소: 가톨릭신학교 강의동 2층 8강의실

강사: 김정희 바오로 신부 / 8만원

문의: 성지안내봉사회, (010)9255-4615

대구성령봉사회 중재기도팀 모집

중재기도팀을 새롭게 만들게 되어 함께

동참하실 분들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소: 월막피정의집

신청: (010)5119-5608 / (010)8576-4577

■ 일반 | 기타 알림

경산베네딕도성경학교 신입생 모집

심화: 성문서 / 지혜문학(월)

일반: 요한계 문헌(화), 복음서(수)

예언서(목), 모세오경(금)

오전반 10:00~12:10 / 저녁반 19:30~21:30

문의: (010)8750-6573 / (010)2770-4627

대구대교구 파티마의세계사도직

첫토요일 성모 신심 미사

일시: 8.1(토) 10:00 썰기도, 11:00 미사

장소: 성모당

부산교구 성령쇄신봉사회 묵상회 안내

520차 부산교구 성령묵상회(일반)

기간: 7.31(금) 18:00~8.2(일) 17:00

521차 교구성령묵상회(일반)

기간: 8.21(금) 18:00~23(일) 17:00

장소: 양산 영성의집, (055)382-9465

선한목자예수수녀회 온라인 묵주기도 모임

일시: 8.1(토) 11:00(첫 토요일 11:00)

장소: 카카오톡 오픈채팅

“온라인 묵주기도 모임” 검색

대상: 35세 이하 미혼 여성

문의: (010)4882-9674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양성교육

기간: 8.12(수)~13(목), 포항성모병원

대상: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심 있는 분, 자원봉사 활동을 희망하는 분(선착순 40명)

모집: 8.3(월)~7(금) / 교육비: 1만원

문의: 포항성모병원, (054)260-8416

가톨릭 좋은 학교 연수

일시: 8.29(토) 당일

장소: 양업고, (043)260-5076

대상: 대안교육에 관심있는 학부모, 일반인

접수: 8.18(화) 10:00부터

비용: 7만원(접수 완료 후 입금)

예수회 수도생활 체험학교

지나온 삶을 성찰, 노년을 의미 있고 충만히 하는 프로그램 / 10일 / 100만원

기간: 9.2(수)~11(금) / 11.20(금)~29(일)

장소: 예수회 말씀의집(수원)

대상: 60세 이상 / (010)7451-9707

자비와 회복학교(온라인강의)

2026년 2학기 모집 안내

기간: 9.3~12.10(매주 목) 21:30~22:30

지도: 김태광 신부(팔로티회)

문의: (010)8911-5957 / 15주

인터넷검색: 자비와 회복학교

마리아학교 9월 학기 중반 수강자 모집

기간: 9.10~2.28(매주 목) 20:00~22:00

(6개월) / 내용: 성모님에 관한

체계적인 배움, 33일 봉헌

접수: 서울마리아학교, (010)2724-4819

※ 온라인에서 어디서나 폰수강 가능

예수고난회 다네이 글방

한달에 한권의 책읽기와 한편의 글쓰기

일시: 9월부터(매달 둘째, 넷째주 월)

20:00~22:00 / 대상: 수도자, 성직자

문의: (010)9503-1127(비대면, 무료)

서강대학교 미래교육원 학점은행제 모집

서강대 총장명의학위(미디어공학) 수여 학점은행제기관으로 빠른 학위취득 가능

모집: 멀티미디어학 / 인공지능 전공

접수: 8.5(수)까지 / 전형일: 8.8(토)

문의: (02)705-8678 / scec.sogang.ac.kr

그리스도의례지오수도회 성지순례 모집

7월: 캐나다 성모성지 (9박 10일)

11월: 멕시코&칸쿤 성모성지 (10박 11일)

문의: (010)5735-4578

교구 | 대리구 알림

18차 약혼자 주말

기간: 8.28(금) 20:00~30(일) 15:00경

장소: 연화리피정의집

대상: 예비부부 및 혼인 1년차 부부

참가비: 2인, 36만원 / 마감: 8.20(목)

신청: 교구 가정복음화국, 250-3077

월간 <빛> 구독 신청 안내

월간 <빛>은 대구대교구가 발행하는 신자 가정을 위한 월간지입니다.

구독 문의: 총무부, 250-3158

시편강좌 시즌 4 수강생 모집

기간: 8.20~(매주 목) 10:30, 10주간

장소: 1대리구청 강당(선착순 30명)

강사: 이엘렉타수녀(넝뜨교베네딕도수녀회)

신청비: 5만원 / 마감: 8.14(금)까지

문의: 1대리구청, 426-7200

산격성당 사무장 채용

자격: 가톨릭 신자 (경력자 우대)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증명서

문의: 사무실, 943-9030

영천성당 묘원 봉안담(영원한천국)

분양 안내

장소: 영천시 금호읍 원제리 74-3

구분: 부부단, 개인단

문의: (054)338-3381

시설 | 기관 알림

가톨릭여성교육관 강좌 안내

서양화, 발성법, 합창교실, 캘리언 그림,

제대꽃꽂이, 피아노, 성인 모래놀이치료,

가톨릭 미술의 이해, 가야금 성가연주,

성가반주 오르간, 가곡과 성가, 유희,

사범자격과정 꽃꽂이 / 신청: 254-6115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질병의 조기발견과 다양한 검진을 통해 건강한 삶을 지키십시오

일반검진, 암 검진(암검진은 예약 필수)

문의: 650-4591 (8:00~17:00)

대구가톨릭대학교 입학생 모집(9.7~11)

온라인으로 집이나 직장에서 4년제 졸업

고졸 이상 시험 없이 누구나 / 국가장학대상

등록금 무료 / 학과: 복지서비스,

상담심리, 창업경영, 바이오융합학과

문의: 850-3117 / (010)8560-5814

가톨릭청소년회 대구청소년수련원

실버&성인 필리핀 영어연수

단체 출국: 8.30(일)

지역: 필리핀 바콜로드

내용: 주중 영어연수, 주말 봉사

문의: 대구청소년수련원, 593-1273

cpbc 대구가톨릭평화방송 (FM 93.1MHz) 오늘의 강론 7월 27일(월) ~ 8월 1일(토) 6:50, 16:50, 23:50 박도현(요셉) 신부

서울아산내과
대표원장/전문의 박 현 진(사도요한)
** 일요일·365일 진료 **
CT검진 | 건강검진센터
위대장내시경 | 초음파 | 만성질환관리
신매역 ⑤번출구 하나은행 2층 ☎ 792-8275

Since 1963
가톨릭피부과의원
63년 역사와 전통의 피부질환 전문병원
습진 / 무좀 / 아토피 / 건선 / 탈모 / 레이저 시술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로15길 28
☎ 053) 320-2000

SINCE 1975 **백두병원**
대구, 경북 최초 스트라이커사
마코 무릎인공관절수술 로봇수술
어깨 보존치료우선 관절경수술
척추 양방향 내시경술
대구 달서구 월배로 18, 053-425-5919
정형외과 전문의 백억두(아오싱임)

KGB 포장이사
꼼꼼히 딱 하루 한집만!!
내 집처럼
김진수(마르티노) 010-7484-3355
무료전화 080-053-1000

“하지정맥류만을 위한”
이연재 맥 의원
원장 : 이 연 재(예리)
흉부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대한정맥학회 이사
652-9777 www.meckclinic.com
서부정류장에서 남대구 IC방향 200m

강한
속내과유외과의원
건강검진센터
위/대장 내시경 | 유방/갑상선/복부 초음파
성인병(고혈압, 당뇨, 고지혈 등)
내과 전문의 김민준(라파엘) | 외과 전문의 김민수(라파엘라)
대구 서구 국제보성로 223 대원빌딩 3층 T. 565-7585

장 윤 제
연 합 치 과
뉴룩대학교 임플란트과 임상교수 역임
원 장 장 윤 제(바르나바)
대구은행 본점 맞은 편
T. (053)752-9797

진심을 담아 진료합니다
진심내과 의원
의학박사 손지현(아네스)
심장검진 | 심장초음파
대구시 중구 달구벌대로 1999 (동산동) 척탐병원 3층
청리언덕(신남)역 9번출구 진료문의, 053-422-3334

개원 41년
달성 피부과
●아토피·여드름·피부재활 전문케어
●보톡스·살리프팅 ●면역강화 수액요법
원장 손재경(다미아노) · 김민주(레지나)
DALSUNG
053)566-4333, 2호선 두류역 3번출구

목,허리,어깨,무릎 통증치료전문
서울에이스통증의학과
도수치료 / 체외충격파 치료 전문 (최신 체외충격파 치료기 도입)
목 / 허리 통증 / 오십견 / 무릎관절염 / 스포츠 손상
원장 권 일 치 (안드레아)
진료과목 : 통증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동구 아양로 46 [신명동214-4] 2층 Tel 053 954 7582

수술 전문 안과
더블유 W안과
053-633-0123 최우근(펠릭스)
망막 / 백내장 / 녹내장 / 안성형
상인역 1,2번 출구 다이소 3층

국내·해외 성지순례 전문
10/13, 11/10 제주도 3일 11/16, 12/14 베트남 라방 5일
10/2, 11/24 홍콩-마카오 4일 10/2, 11/17 나가사키 4일
9/17 동유럽 6개국 12일 10/5 그리스-투르키에 12일
미카엘여행사 ☎ 010-8650-9690

파크골프
골프채·최대 50% 수입채 레슨가능
신일선통기 에어서클 소형가전
소금염좌욕기 게르마늄목욕트
(주)매일프라자
김요셉 010-9804-8008
유통단지로 45 전자관 동문 1-240호

백두상회
우리 동네 맛있는 습관!
살맛나는 신선함, 오늘도 백두상회
대표 허재훈 (마티아)

HS **희성고속관광(주)**
HEE SUNG EXPRESS TOURIST CO., LTD.
대표이사 서 상 윤(안젤로)
송 정 애(안젤라)
전세버스 / 국내여행 / 해외여행
☎522-5800 | 010-4508-4328
010-2002-4328

대구연세안과
실크스마일
레이저 백내장 수술
대표원장 박중원(소시모)
의학박사(현 연세대 외래교수)
문의전화 626-8881~5